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경 축 재외동포청 개청
	배포일자	2023년 6월 25일(일) 총 2매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 자	• 의약관리팀장 공 석 • 담당자 이시영 ☎440-273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마약은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 마약 중독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동참 -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인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23일 마약 중독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전 국민에게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투약하는 순간 중독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운 출구 없는 미로(NO EXIT)와 같은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연말까지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의 지명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유정복 시장은, “마약은 절대 시작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며, 했다면 당장 끊어내야 한다” 며 “마약 없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는 마약류 폐해 예방 종합 계획을 세워 마약퇴치사업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마약 중독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 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노 엑시트’ 릴레이 캠페인 다음 주자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차유람 전 당구선수,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에 출연한 인천의 MZ크리에이터 이재시, 이재아 양을 지목했으며, 이번 캠페인은 범국민적인 캠페인으로 지속될 예정이다.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업로드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마약 중독 예방과 근절을 위한 마약류 취급자 교육, 양귀비·대마 단속 및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예방 교육 그리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 인천시교육청, 인천지검, 인천경찰청, 인천본부세관으로 마약 범죄 특별대책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시청 관계 부서간 회의 개최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관련사진> 캠페인 사진

